

우리는 정작기에 들어서다  
우리 낙농가가 일구어낸 자조금제도

**김** 세월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그렇게도 낙농인들의 염원인 자조금제도를, 낙농인과 우리 힘의 중심체인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노력 끝에 정착의 단계에 올려 놓았다.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일손을 놓을 수가 없어 어렵게 어렵게 우유 생산을 하였어도, 정부 및 관계기관의 부정확한 통계 및 시장변동 또한 무분별한 소비습관 등으로, 매스컴에서 조금만 잘못된 정보를 흘려도 바로 소비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잘못된 소비형태 등 갖가지 악조건하에서, 생산의 과잉이 되었다면 바로 집유를 거절하는 등 우유생산업체들의 횡포까지 가세하여 그 아까운 우유를 하수구에 버려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겪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던중 조금씩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을 한 발 앞서 겪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한 끝에 자조금제도의 성공을 보고 고무되어 우리의 낙후된 축산환경에서 이러한 자조금 제도를 도입코자 약 15년 전 미곡물협회 박영인 회장, 사료협회 박찬근 회장, 농업대학 박진환학과장과 본인이 1987년 6월 13일부터 약 2주일간 미국의 농민단체의 자조금제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그곳에서 보고 배운 자조금제도에 대한 소개를 동년 9월과 10월에 올린지 14년 만에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우리 하나 하나의 낙농가가 존경스럽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일을 진행시킨 협회 회장과 집행부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모든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100%참여하는 자조금제도를 향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는 아직 이해부족이나 남의 일쯤으로 여기며 참여를 안하시는 농가에게 부탁을 드린다.

우리가 앞으로 정부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여 호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우리 생산자 자신의 솟아나는 단결의 힘이 필요한 현실이다.

우리는 그 혹독한 악조건으로도 50여년을 참고 견딘 것은, 그 누구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김 의 수  
본회 고문  
(4대 회장)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아침 착유 5시, 저녁 착유가 끝나면 8시 1년 365일을 단 한 시간도 손을 뻐수 없는 생업이 자아무나 할수 없는 전문적인 일손이 필요한 일이니까...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사진 하나 없는 농정 정책, 장관이 바뀔 때마다, 세계의 정세가 바뀔 때마다 뒤바뀌는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 50년 동안 조봉암 장관으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51명이나 평균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낙농가 자신이 해결책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강력히 추진하여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여 장래를 위한 상책을 보고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낙농과 관련된 사료협회, 유가공협회, 낙농가의 한사람도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법제화를 하여 자조금 프로테이지를 정해 낙농, 육우, 양계, 양돈도 사료대에 자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낙농과 육우, 양돈, 육계는 사료에 부과되고 양계는

긴 세월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여, 그렇게도 낙농인들의 염원인 자조금제도를, 낙농인과 우리 힘의 구심체인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노력 끝에 정착의 단계에 올려 놓았다.

낙농업자들의 자조금 성패는 우리 농업 전반에 크나큰 영향력을 줄 것이며,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 낙농가는 자립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과정을 하루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계란 위생처리 세척기관에 검사출하시에 부과하여 자동적으로 자조금의 정착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낙농협회와 육우협회간에 낙농의 생산조절의 일환으로 착유우 도태시 낙농협회와 육우협회는 육우의 생산출하에 영향을 미친다 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주장하여 협상되어야 할 쟁점이 되기도 한다.

양계에 있어서는 계란이 생산되면 위생처리 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세척보관하는 업종이 따로 되어 있으며 육계와 양계업자에게 구분하여 자조금을 책정하는 제도가 성립이 되어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업계, 학계, 생산자단체등 모두 합심하여 많은 자조금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루 속히 생산자가 먼저 눈앞의 회생을 감수하여서라도 자조금제도를 성사시

키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다.

낙농업자들의 자조금 성패는 우리 농업 전반에 그 영향력을 줄 것이며,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기여할 것이므로, 우리 낙농가는 자립심을 가지고 성

공적인 과정을 하루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끝으로 정부에 간곡한 부탁과 소원은 WTO의 세계화에 대응하려면 선진국과 동등한 정책과 조건을 근접시켜서 농업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고, 용기를 내어 좌절하지 않도록, 자조금제도를 안착시켜 100% 참여하여 성공시킴으로서, 타 업종에도 모두 자조금제도가 정착하도록 하루 빨리 법제화하여 주기를 바란다.

